

“먹고 살아야죠”… 노인들의 고단한 리어카

광주 폐지 수집 노인들 만나보니

새벽 3시에 나와 하루 2만원 벌어
 덩지만 화상 피하려 긴팔·긴바지
 휴식 취할 곳 없어 온열질환 위험
 市, 폭염 보호용품 배부 등 지원책

“이런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 정말 너무 어지러워요. 쉴 곳도 없고, 물이라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광주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숨막히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지만, 생계를 위해 무더위 속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온열질환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 더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4일 오전 6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한 고물상.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한낮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노인들은 폐지가 잔뜩 담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을 방문했다.

고물상 안에 들어서자 노인들은 굵은 허리와 왜소한 팔로 끌고 온 폐지 수집 손수레를 잠시 멈춘 채 모자에 손을 넣어 흘려내리는 땀을 닦았다.

이들은 대부분 햇볕을 막기 위한 팔 토시나 긴팔 옷, 밀짚모자, 마스크 등으로 전신을 감쌌으며, 손수레나 리어카에 양산을 매단 노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준비는 뜨겁게 작열하는 햇빛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아침인데도 그들의 옷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박인수(77)씨는 “요즘 같은 여름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한다. 한낮에는 돌아다니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폐지를 줍다가 너무 어지러울때는 길가에 앉거나 나무 그늘을 찾아 쉬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 두껍게 끼입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름철에는 아무리 더위도 햇빛이 너무 강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0년째 폐지 줍는 일을 하는 박씨는 새벽부터 집에서 나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

에 팔아 하루 2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김경자(73)씨도 “무더운 날씨때문에 요즘 오전 3시부터 집에서 나와 오전 내내 폐지를 줍고 해가 지면 또 나온다. 햇빛을 막기 위해 긴팔과 긴바지, 장갑, 모자들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니 더 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물상에는 더위 속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에 도착한 서향수(73)씨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고물상 주인이 나눠준 물을 들이켰다.

서씨는 “이런 폭염 속에서 내 몸의 두배가 되는 무게의 리어카를 가지고 돌아다니니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다. 돈을 벌려면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길 한복판에 쉴 곳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길가에 앉아서 쉬다”며 “리어카를 끌 때도 햇빛때문에 손잡이가 뜨거워져서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 지자체에서 장갑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씨에 이어 자전거에 폐지를 한가득 묶어 힘들게 고물상에 도착한 강성우(74)씨. 강씨 역시 이마는 이미 땀으로 가득했으며 사용하던 장갑도 축축한 상태였다.

강씨는 “폐지 값도 얼마 안 돼 몇 시간동안 계속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다보니 쉽게 땀뻘뻘이 된다”며 “우리같은 노인들은 몸이 약해 위험하고 특히 이런 여름철엔 더 그렇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물상 관계자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 이른 아침임에도 하루에 10명씩은 방문한다”고 전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차양모자, 형광토시, 쿨링물티슈, 쿨타월, 쿨파스, 벌레약,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포함된 보호용품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름철 대체 일자리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올해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폭염 등 위험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폭염 보호 대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연일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광주 쪽방촌 거주민 1000명 육박…”

모텔·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거주 936명
 북구 51%·동구 28%·서구 12% 등 분포
 ‘쪽빛상담소’, 식사·심리상담 등 지원
 “자치구별 관리·지원센터 건립 시급”

“광주에는 생각보다 쪽방촌이 많습니다. 알려진대로 동구도 많지만, 광주 전역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인 비주거시설 거주민이 상당합니다.”

광주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모텔, 여관,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백여명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주거시설은 모텔, 고시원 등 일반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부엌, 화장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증금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 월세를 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을 비주거시설

거주민으로 칭한다.

지난해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비주거시설 거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36명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51.3%(480명)로 가장 많았고, 동구 28.3%(265명), 서구 11.6%(114명), 남구 3.8%(45명), 광산구 2.6%(32명) 순이다.

이 중 설문에 동의한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주시설은 고시원(38.0%)이 가장 많고, 모텔(32.2%), 여관·여인숙(29.8)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거주 특성은 동구는 모텔, 서구·남구·광산구는 여관·여인숙, 북구는 고시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동구는 60~70대, 북구는 40~50대, 서구는 30대 이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구 거주민은 근로를 하지 않는 비율이 73.2%로 가장 높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거주민은 서구(47.1%)와 광산구(46.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